

## 喻昌의生涯와醫學思想

金秀烈 · 尹暢烈

### The life and medical idea of Yoo Chang

*Kim Soo-Yeol, Yoon Chang-Yeol*

Dep. of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t early Cheong (清) dynasty, in medical aspect by dependent on practical studying attitude that must found a theory only by an evidence, there had been a tendency that hoped direct research of sages' mind-eye by escaping the theory of individual classes since Geum-Won (金一元) dynasty.

Yoo Chang (喻昌), born in Man-Ryeok (萬曆) 12th year of Myung (明) dynasty (AD1583) and dead in Gang-Hee (康熙) 3rd year of Cheong (清) dynasty (AD166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fter studying his practical idea of medicine.

1. Yoo Chang, by recognizing the ≪Sang-Han-Ron≫ has lost its true meaning after commented by Wang Hee (王熙), Lim Eog (林億), Seong Moo-I (成無已), etc. according to Bang Yoo-Jip's (方有執) Chak-Gan-Jung-Jeong (錯簡重訂) theory, he diversified the protocol of ≪Sang-Han-Ron≫ 397 method and arranged under Six Meridian part. (六經)
2. The theory of Sam-Gang-Jeong-Rip (三綱鼎立) can be summerized Gye-Ji (桂枝) syndrome which is the case of Wind (風) has injured Wi (衛) stage, Ma-hwang (麻黃) syndrome which is the case of Cold (寒) has injured Yeong (榮) stage, Dae-Cheong-Ryong (大青龍) syndrome which is the case both of Wind-Cold (風寒) has injured Yeong-Wi (榮衛) stage, and there has been Sam-Gang-Jeong-Rip theory by anterior medical practitioners already but the person who formally used its Sam-Gang-Jeong-Rip term is Yoo Chang.
3. Yoo Chang seized the On Byeng (溫病) by dividing three category and in Byon-

Jeung-Si-Chi ( 辨證施治 ) he influenced to many aspect of establishment of later Byon-Jeung system On-Byong ( 溫病의 辨證體系 ) pertaining to Triple-Warmer by O-Dang ( 吳瑭 ) introducing Triple-Warmer Theory. ( 三焦理論 )

4. At Chu-Jo-Ron ( 秋燥論 ) of ≪ Eui-Moon-Beop-Ryol ≫, while ≪ Nae-Gyeong ≫ describing if humidity injury Lung, then occur a disorder in it, Yoo Chang recognized that of autumn when dryness injure Lung there occur a disorder is it so he insisted that at this case, must use Cheong-Joe-Goo-Pye method ( 清燥救肺法 ) with herbs, pertaining to Gam-Yoo -- Ja-Yoon ( 甘柔滋潤性 ) property and he invented Cheong-Joe-Goo-Pye-Tang. ( 清燥救肺湯 )
5. Yoo Chang', so called, Dae-Gi ( 大氣 ) indicates Yang-Gi ( 陽氣 ) of chest, he insisted that man's creation and every physiological activity depends on maintenance of Dae-Gi, and it integrate Yeong-Gi ( 榮氣 ), Wea-Gi ( 衛氣 ), Jong-Gi ( 宗氣 ), Jang-Boo-Ji-Gi ( 臟腑之氣 ), Gyeong-Rak-Ji-Gi. ( 經絡之氣 )
6. Yoo Chang's expression about partial function and character of stomach, not only bolster its theory of historical physician's expression, that is stomach is foundation of postnatal period, but also it has corresponding aspect with modern medicine and clinic.
7. Yoo Chang emphasized "if one cure a disease, be must understood the character of disease first and use drugs later" ( 先議病 後用藥 ) phrase about of drug usage, and his theory of Geup-Rew-Man-Joo method ( 急流挽舟 ) and three therapy of Simple Ascite ( 單腹脹 ) are all unique opinion based upon this phrase mentioned above.
8. Yoo Chang's practical idea of medicine greatly influenced to Jang Ro ( 張璐 ), Hwang Won-A ( 黃元御 ), Oh Eui-Rak ( 吳儀洛 ), Joo Yang-Joon ( 周揚俊 ), etc. and theory of Sam-Gang-Jeng-Rip ( 三綱鼎立 ), Triple Warmer Theory of On Byong ( 溫疫의 三焦論治 ), Chu-Jo-Ron ( 秋燥論 ), Dae-Gi-Ron ( 大氣論 ) etc. became important object to student of Sang-Han ( 傷寒 ) and On-Byeng. ( 溫病 )
9. Yoo Chang's Writings has more practical meaning than other physician's, especially, later the idea of Sang-Han ( 傷寒 ) and On-Byong ( 溫病 ) greatly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Sang-Han theory and formation of On-Byong theory.

## I. 緒 論

東洋醫學은 《黃帝內經》이 이루어진 後에 그 理論體系가 確立되었으니, 그 內容에 있어서 基礎理論으로부터 診斷, 治療, 養生, 針灸等에 이르기까지 仔細히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具體적인 疾病의 治療는 거의 全部 針刺法을 썼으며, 藥物治療를 쓴 곳은 全書에 걸쳐 겨우 11곳 뿐이다.<sup>1)</sup> 그 후 漢代(BC 206 ~ AD 220)의 張機(2世紀中~3世紀·仲景)가 《傷寒雜病論》을 지어 《內經》의 理論을 뒷받침하여 주었다.

《傷寒論》은 十卷으로 되어 있으며 《傷寒雜病論》의 傷寒部分을 西晉의 王熙(AD 3世紀·叔和)가 收集, 整理, 編次하여 《傷寒論》이라 題명한 것이다.

本書는 《內經》, 《難經》의 理論을 基礎로 漢代以前의 醫學을 總括하였으며, 人體가 風寒의 邪를 感受한 後에 發生하는 臟腑, 經絡의 病理變化와 臨床證候의 特徵을 把握하여 外感疾病의 發生과 發展의 變化, 規律, 治療原則, 藥劑의 配伍方法 等に 嚴密한 系統을 세워 理, 法, 方, 藥에 一貫性を 지니 外感疾病과 其他 雜病의 辨證施治에 基本規律이 되어 後世 醫學發展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sup>2)</sup>

張機의 《傷寒雜病論》이 이루어진 後, 當代에 이미 이것이 진짜 活人書라고 禮讚을 받았다.

그러나, 《傷寒雜病論》의 原書는 張機의 自敍에 依하면 모두 16卷인데 著述된 後에 오래지 않아 散失되었다. 그 후 西晉에 이르러서 王熙가 새로 收集하여 整理를 加하였으며 그 以後에는 傳抄, 書名, 卷數가 或은 分合되고 或은 改變되었다.

清代初期에는 經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空理空談을 排斥하고 證據에 依해서만 理論을 세운다는 實證적인 研究態度를 取하여, 經史의 考證, 訓詁에 重點을 두었는데 이를 考證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方法은 歷史學, 地理學, 書誌學, 音韻學, 金石學 等 各 方面에 걸쳐서 커다란 成果가 있었다.

醫學에서도 考證學의 勃興에 影響을 받아 醫學經典 本來面目을 窮究하여 곧 바로 聖賢의 心法을 探求코자 하는 傾向이 있어 《內經》이나 《難經》에 對하여 注釋을 달거나 內容을 整理하기도 하였으며 特히 《傷寒論》에 對한 論爭이 가장 많았다.<sup>3)</sup>

《傷寒論》研究方面의 論爭은 《傷寒論》의 編纂方面, 整理에 關한 論爭, 그리고 “六經”의 解釋에 對한 論爭으로 要約된다.

《傷寒論》의 編纂에 있어서 明代의 方有執(1522년~?·仲行)이 “錯簡”說을 提唱하여 王熙가 《傷寒論》의 原文次序를 바꾸어 意義가 不明하게 되었고, 後人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主張하여, 스스로 自己의 意見에 따라 새롭게 編纂하여 《傷寒論條辨》을 지었다.

清初에 喻昌(1583~1664·嘉言)은 《尚論編》을 지어, 《傷寒論》의 “錯簡”을 主張하였고, 또 整理에 있어서도 太陽病을 風傷衛, 寒傷榮, 風寒兩傷榮衛로 나누는 것을 基本 根幹으로 하는 “三綱鼎立”의 學說을 主張하여 當時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었으며, 또한 溫疫의 病機와 辨證을 三焦論으로 說明하여, 後에 吳瑭(1758~1836年·鞠通)이 溫病의 三焦 辨證體系를 確立하는데 많은 影響을 미치었다. 그리고 “가을에 濕에 傷했다

는 것은 마땅히 燥에 傷했다는 것의 誤다.” 라고 主張한 「秋燥論」과, 人體 生理, 病理 作用에 胸中陽氣의 支持가 있어야 함을 闡明한 「大氣論」 등은 喻昌의 獨特한 見解이며, 그의 著書 《寓意草》중에 있는 《先議病後用藥》一篇은 醫師로써는 반드시 지켜야 할 事項인 것이다.

이에 著者は 淸初 三大 醫家中의 한 사람이며, 淸初의 代表的인 醫家인 喻昌의 生涯와 그의 醫學思想에 關하여 본 論文을 展開하고자 한다.

## II. 本 論

먼저 喻昌이 生存했던 淸代의 醫學思想과 潮流를 分析하며, 喻昌의 生涯 및 著作을 살펴보고, 明代以後의 傷寒 三大流派를 研究하여 《傷寒論》에 對한 諸家의 主張과 喻昌의 《傷寒論》編次에 對한 見解를 照明하며, 아울러 喻昌이 처음으로 主張한 溫疫의 三焦論治와 喻昌 特有의 胃病證과 治療에 對한 思想, 그리고 獨特한 見解인 「秋燥論」「大氣論」 및 用藥原則에 對한 主張을 探究하며, 마지막으로 喻昌의 醫學思想이 後世에 미친 影響을 研究하는 方法으로 본 論文을 展開하고자 한다.

### 第1章 淸代의 醫學思想과 喻昌의 生涯 및 著作

#### 第1節 淸代의 醫學思想과 潮流

明末의 陽明學은 空疎狂肆에 흘러 한때 거

기에 對한 反作用으로 朱子學이 盛行하기도 했다.

이때는 經學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空理空談을 排斥하고 證據에 依해서만 論理를 세운다는 實證的인 研究態度를 取하여, 經史의 考證, 訓詁에 重點을 두었고 이를 漢學 또는 樸學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學風은 顧炎武에 依해 始作되어 戴震(1723~1773年), 段玉裁(1723~1815年) 등에 의해 完成되었으며, 考證學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研究方法은 歷史學, 地理學, 書誌學, 音韻學, 金石學 등 各 方面에 걸쳐 커다란 成果가 있었다.<sup>4)</sup>

淸初에 醫學에서도 考證學의 勃興에 影響을 받아 醫學經典 本來面目을 研究하여, 金元以來의 各家의 學說을 벗어나 곧 바로 往聖의 心法을 探求코자 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들은 《內經》이나 《難經》에 對하여 註釋을 달거나 簡略히 內容을 整理하기도 하였으며, 特히 《傷寒論》에 對한 論爭이 가장 많았다.<sup>5)</sup>

《傷寒論》研究方面의 論爭은 三方面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傷寒論》의 編纂方面의 論爭이고, 둘째는 整理에 關한 論爭이며, 세째는 “六經”의 解釋에 關한 論爭이었다.

淸代醫學의 特徵이라면 溫病學의 發展을 들 수 있다.

溫病學說은 《內經》, 《難經》, 《傷寒論》等 書에서 始作되어 그 後 宋, 元, 明, 淸을 거치면서 不斷히 補完되고 發展하여 漸次 하나의 獨立된 學派가 되면서 그 理論體系도 漸次 完備되었다.

淸初에 喻昌은 溫病과 傷寒의 關係에 對하여는 《內經》의 說을 따랐지만 그러나, 溫疫에 對하여는 다른 見解를 提出하였다.

즉 四時의 不正한 氣에 依하여 發生하는 病은 疫이라 부르지 않고 病으로 죽은 病氣나 尸氣가 不正之氣와 混合되어 發生한 病을 疫 또는 溫疫이라고 하며, 溫疫의 邪氣는 口鼻로 들어오며, 中途로 直行하여 三焦에 流布되므로 治療에 있어서는 急히 逐邪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인데, 上焦는 升而逐之(汗)하고, 中焦는 疎而逐之(和)하며, 下焦에 있으면 決而逐之(下)하되, 아울러 解毒을 兼해야 한다고 主張하여 溫疫을 三焦로 나누어 分治한 開始者가 되었다.

淸代 乾隆(1736~1795)年以後에 中國江南에 葉桂(1667~1746·天士), 余霖(師愚), 薛雪(1681~1770·生白), 陳平白, 吳塘(1758~1836·鞠通), 王士雄(1808~1866?·孟英), 周揚俊(17世紀 中葉·禹載) 등의 溫病을 專的으로 研究하는 學者들이 出現하여, 溫病이 傷寒과 다름을 主張하고, 各己 自己의 主張과 經驗으로 著書를 하고, 學說을 세워 이른바 溫病學派가 비로소 漸次 形成되었다. 이들 중에서 葉桂, 吳塘, 王士雄의 影響이 가장 컸으며, 또 그 중에서 葉桂가 더욱 著名하여, 溫病學派의 創始者로 일컬어졌다.<sup>6)</sup>

한편, 溫病學說이 形成된 以後에 傷寒과 溫病에 對한 論爭이 있었는데, 즉 傷寒派들은 溫病과 傷寒은 一流이며, 張機의 《傷寒論》에 이미 溫病이 包括되어 있으므로, 《傷寒論》의 理, 法, 方, 藥만 잘 알면 一切의 溫病도 治療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溫病學派들은 溫病과 傷寒은 서로 다른 疾病이라 主張하고, 古代에는 傷寒이 많

고 溫病이 적었으므로, 張機의 《傷寒論》中에는 溫病을 詳細히 言及하지 않았으나, 近世에는 溫病이 많고 傷寒이 적기 때문에 傷寒의 治法을 쓸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sup>7)</sup>

그러나 代表的인 溫病學者인 王士雄도 그의 著書 《溫熱經緯》에서 《內經》과 《傷寒論》의 많은 文章을 引用하였고, 또한 吳塘도 《溫病條辨》에서 《傷寒論》의 筆法을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 傷寒과 溫病은 本質的으로 다른 病이 아닌 것이요, 溫病은 一般 熱性傳染病의 傳變過程과 治療法에 對한 《傷寒論》보다 좀 더 發展된 一種의 學說인 것이다.

## 第2節 喻昌의 生涯 및 著作

喻昌의 字는 嘉言, 號는 西昌老人으로 江西 新建 사람이다. 明의 萬曆 十二年(西紀 1583年)에 태어나서 淸의 康熙 三年(西紀 1664年)에 卒하여 八十歲를 살았다.<sup>8)</sup> 明 崇禎中에 貢生에 選拔되어 入京하였으나 後에 淸兵이 入關하자 절에 들어가 參禪을 하고 隱居生活를 하였다. 이때 醫學을 工夫했으며 오랜시간 醫學에 從事하며 南昌과 靖安 사이를 往來하였으며 西紀 1664年에 江蘇의 常熟에 移寓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醫術로 이름이 높았다.

喻昌이 生活하던 江西 新建 땅은 氣候的으로 高溫, 多濕하여 傳染病의 發生이 잦았고, 또한 喻昌의 生存 當時에 明나라와 淸나라의 많은 戰爭으로 百姓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 이런 時代·環境的인 影響으로 喻昌은 傷寒과 溫病에 對하여 깊은 研究를 할 수 있었다.

淸初에 考證學의 發興에 影響을 받아 醫學

에서도 醫學經典 本來面目을 窮究하여 往聖의 心法을 探求코자 하는 傾向이 있어 《內經》이나 《難經》에 對하여 註釋을 달거나 簡略히 內容을 整理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傷寒論》에 대한 論爭이 가장 많았다.<sup>9)</sup> 喻昌도 方有執의 說을 繼承하여 “錯簡重訂” 說을 主張하였다.

所謂 “錯簡”이란 《傷寒論》이 王熙의 編次와 林億(11世紀), 成無已(11世紀)의 校註를 거친 뒤에 張機 本來의 《傷寒論》原貌樣이 뒤섞였다는 것이고 “重訂”이란 《傷寒論》條文을 거듭 새롭게 編次하고 바르게 고쳤다는 것으로, 《傷寒論》原形 回復을 圖謀한 것으로 喻昌은 三百九十七法을 使用하여 《傷寒論》을 訂正했으니, 즉 《傷寒論》原文內容을 三百九十七法으로 나누어 六經의 아래에 나누어 놓았다.

實際에 있어 喻昌의 《尙論篇》中에는 三百六十七法이 訂正되어 있고 《尙論後篇》에는 春溫內에 三十法이 訂正되어 있다.<sup>10)</sup>

喻昌의 著書로는 《尙論篇》四卷, 《尙論後篇》四卷, 《醫門法律》六卷, 《寓意草》四卷이 있다.<sup>11)</sup>

《尙論篇》은 “尙論張仲景傷寒論三百九十七法”의 簡稱으로 첫째가 尙論大意一 편으로 傷寒論을 重訂한 意義를 說明하고, 다음으로 王熙, 林億, 成無已 등이 錯誤한 것을 批判한 論文三篇이 들어 있다.

그는 《傷寒論》의 原文에 대하여 六經各自로 篇을 삼았으니 太陽病은 風傷衛, 寒傷榮, 風寒兩傷榮衛의 三篇으로 나누었고, 陽明病은 太陽陽明, 正陽陽明, 少陽陽明의 三篇으로 나누었고 少陽病이 一篇이고, 太陰病이 一篇이고, 少陰病은 直中과 傳經의 兩篇으로 나누

었고, 厥陰病이 一篇이다. 이것과 別途로 三陽病 後에 合病, 併病, 壞病, 痰病의 四類가 있고 三陰病 뒤에는 過經不解, 差後勞復 및 陰陽易病의 三類가 덧붙여 있다.

《尙論後篇》은 溫證, 合論, 直中, 小兒會講, 問答, 六經諸方 等の 內容을 包括하고 있다.<sup>12)</sup>

《醫門法律》은 1658년에 이루어져 臨床病證을 結合하여 辨證論治의 法則(即「法」)을 正面으로 闡述하고 아울러 一般 醫生들이 辨證治療에서 犯하기 쉬운 錯誤를 明確히 指摘하여 禁例(即「律」)로 指示했으므로 書名을 「法律」이라 했다. 卷一은 四診의 法律과 《內經》, 《傷寒論》의 論治法則을 闡發하고 卷二~六은 風, 寒, 暑, 濕, 燥, 火와 雜證을 分門하여, 各種 疾病의 證治를 論述하였다. 每門에 먼저 ‘論’을 두어 病證마다의 病因, 病理, 變化를 分析하고 다음에 ‘法’을 두었으며 그 다음은 ‘律’을 두었다. 論述과 理致의 分析이 透徹한데, 그 중의 「大氣論」, 「秋燥論」과 같은 諸論은 모두 獨創의인 見解가 있다.<sup>13)</sup>

《寓意草》는 1643년에 이루어져 全書에 內科雜病을 爲主로 難治의 醫案 60例가 실려 있다. 앞부분에 醫論 二編이 있는데 “先議病 後用藥”을 強調했으며, 그의 「議病式」은 하나의 病歷書式으로 比較的 完全히 整理된 것이다. 治療醫案을 보면 病因, 病情의 記述이 比較的 詳細하고, 辨證治療의 分析이 明析하다. 그리고 段階的인 設問의 方式으로 治療醫案中の 關鍵과 疑難한 點을 說明해서 醫案著作中에서 相當한 影響을 끼치었다. 다만 적지 않은 醫案이 病情만 論議하고 處方이 없는 것이 아쉽다.<sup>14)</sup>

## 第2章 明代以後의 傷寒 三大流派

宋以後에 비록 傷寒學의 諸大家들이 있었지만 流派를 形成시키지는 못했다.

明代의 方有執이 《傷寒論》의 錯簡說을 主張하면서 점점 後代에 오면서 流派의 실마리가 생기기 始作하였다.

各 流派中에, 《傷寒論》의 編次를 바로잡아 原形回復을 圖謀한 “錯簡重訂”學派, 王熙를 尊敬하고 成無已를 讚揚하여 舊論을 固執하는 “維護舊論”學派, 《傷寒論》이 辨證體系를 이룬 醫學經典이니 그 辨證論治의 運用에 研究를 強調한 “辨證論治”學派의 三大流派가 가장 著名하니, 그 流派의 代表의인 사람들의 主張을 研究하고자 한다.

## 第1節 錯簡重訂

方有執은 張機의 《傷寒雜病論》이 時代가 오래 되어 빠진 것이 많고 자못 숨겨지고, 訛傳되어졌으며, 特히 王熙의 編次를 거친 後에 轉倒錯亂이 甚하게 되었다고 認識하여, 크게 整理하고 考訂하는 氣風을 일으키니 江西의 喻昌이 繼承하여 漸次 重訂錯簡의 一派가 形成되게 되었다.

## 1. 方有執

方有執(1522~?·仲行)은 《傷寒論》이 나온지가 오래 되어 일찌기 이미 張機의 뜻을 잃었으니, 즉 이는 王熙가 編次한 所以이며, 또한 後人들이 變質을 가져왔다고 認識하였다.

《傷寒論》을 徹底하게 理解하려면 가장 重要的 것이 張機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張機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張機의 道

에 合하기를 求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5)</sup>

그리하여 六經諸篇을 크게 改訂하여 太陽을 衛中風, 榮傷寒, 榮衛俱中傷風寒의 三篇으로 把握하였으며, 무릇 桂枝湯證과 그 變證 一類 條文을 改訂하여 “衛中風篇”이라 하여 共히 六十六條, 二十方으로 만들고, 麻黃湯證과 그 關聯되는 傷寒諸條文을 改訂하여 “榮傷寒篇”이라 하여 共히 五十七條, 三十二方으로 만들었다. 또한 靑龍湯證 및 脈浮緊 傷寒脈浮者 條文을 改訂하여 “榮衛俱中傷風寒篇”이라 하여 共히 三十八條, 十八方으로 만들었다.

그는 考訂을 經過한 後에, 王熙가 編次한 以前의 舊觀을 回復하였다고 하여 그 책이름을 《傷寒論條辨》이라 稱하였다. 그 解釋에 “《傷寒論》은 仲景의 遺書요, 《條辨》이라는 것은 叔和 以前의 位置로 바르게 되게 함이니 條의 還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16)</sup>

## 2. 喻昌

喻昌은 方有執의 重考條輯의 主張을 贊成하고, 아울러 進一步시켰다.

四時 外感中 冬月の 傷寒으로써 大綱을 삼으니, 傷寒諸經中 太陽一經을 大綱으로 삼고, 太陽經中, 風傷衛, 寒傷榮, 風寒兩傷榮衛를 大綱으로 삼아서 이로써 三綱鼎立의 說이 成立되었다. 同時에 強調하기를 “仲景의 《卒病論》 六卷은 이제 다시 볼 수 없고, 《傷寒論》 十卷도 역시 火로 써 없어져, 이로 因하여 그 篇目の 先後가 錯誤가 생기니 이에 三百九十七法과 一百十三方의 名目에 依據하여 가히 校正하노라.” 하였다.

그는 그 책을 《尙論張仲景傷寒論重編 三

百九十七法》이라 稱하였는데, 그 가운데 “辨叔和編次之失” “辨林億成無已校注之失” “駁正王叔和序例” 등의 諸篇을 지어 이들을 激烈히 批判하였다.<sup>17)</sup>

## 第2節 維護舊論

《傷寒論》이 錯簡된 것이라고 指摘하는 醫家들은 王熙를 反駁하고 成無已의 意見을 誹謗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王熙를 尊敬하고, 成無已를 讚揚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을 가리켜 維護舊論派라고 한다.

이들은 王熙를 받들고 成無已를 讚揚하는 것이 中心思想이 되었으며 王熙는 張機의 뜻을 어지럽히거나 沒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張機學說을 比較的 完全히 整理하여 後代에 傳하였으니 實로 張機의 功臣이 된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成無已는 張機의 說을 曲解하지 않았으며, 經을 引用하여 그 뜻을 分析하였으니 實로 諸注家中에 으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傷寒論》舊本이 流傳하는 바가 되었고, 比較的 完全히 整理된 體系를 維持하게 되었다고 認識하였으니 張遂辰, 張志聰, 張錫駒, 陳念祖 등이 그 代表的인 醫家들이다.

### 1. 張遂辰

張遂辰(約 1589~1668·卿子)이 《傷寒論》을 보는 見解는, 王熙가 《傷寒論》을 編次한 以後에, 다만 卷數가 若干 移動이 있을 뿐, 內容은 張機의 舊本이라고 認識하였다.

그런 理由에서 그의 《傷寒論參注》의 《辨脈》, 《平脈》, 《傷寒例》부터 “三陽三陰” 《霍亂》 《陰陽易》 “汗吐下可不可” 諸篇의

차례는 모두 舊本을 그대로 維持하였고, 成無已의 注解도 역시 刪改만큼도 變動이 없었으며, 아울러 成氏注를 “經을 引用하여 뜻을 밝히어 諸家의 注는 能히 이길 수 없으며 初學은 能히 이 索途를 버릴 수 없다.”라고 強調하였다.

다만 이런 成氏의 注後에 朱肱(約 11世紀 後期~12世紀 初期·冀中), 許叔微(1079~1154年·知可), 王潛善, 張元素(12世紀·潔古), 龐安時(約 1042~1099年·安常), 李杲(1180~1251年·東垣), 朱震亨(1281~1358·丹溪), 王履(1332~?·安道), 王三陽, 王肯堂(1549~1613年·字泰) 등 諸家의 說을 增列하여 그 책을 지었으므로 그 名稱을 “參注”라 하였다. 傷寒學者中 그는 實로 가히 王熙를 尊敬하고 成無已를 讚揚하는 가장 典型的인 醫學者라 할 수 있다.<sup>18)</sup>

### 2. 張志聰

張志聰(1610~1674年?·隱庵)은 張遂辰에게서 師事를 받고 侶山堂에서 數十人의 弟子와 함께 工夫를 하였으며, 《傷寒論宗印》과 《傷寒論集注》를 지었다.

그는 《傷寒論》의 各條文이 錯簡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또한 前後條가 一貫되어 毫毛의 틈도 없으며 滙節과 分章을 거친 후에 다시금 “理致에 밝아 뜻을 다했으니, 至極히 當然하여 옮길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스승의 維護舊論의 強力한 論據를 提示하였다.

다만 《傷寒例》는 王熙의 作이며, 처음에는 舊論의 末에 있는 것을 移動하여 각고 없애서 아울러 《辨脈》 《平脈》 兩篇과 함께 論後에 展開하여 先證後脈의 뜻에 符合시켰다고 하였다. 다만, 成無已의 注解에 對하여

서는 많은 部分에 異見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傷寒惡寒, 中風惡風”을 張志聰은 그說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遂辰恩師와는 자못 一致하지 않는 바가 있으나 역시 獨自의 境地에 이르렀으며 維護舊論의 中堅人物이 되었다.<sup>19)</sup>

### 3. 張錫駒

張錫駒(17世紀·令詔)는 張志聰과 함께 張遂辰의 門下生이었으며 일찌기 錢塘二張이라는 稱號를 들었다.

스승의 影響으로 如前히 《傷寒論》은 “章節이 整然하며, 前後가 밝게 應하며 血脈이 貫通하여 遺漏가 없으며 醫中 諸書의 《語》《孟》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로 因하여 그가 著述한 《傷寒論直解》에 《傷寒例》를 除去하고 《痙濕喝》《易復》篇 등을 바깥으로 移動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舊論의 次第에 依據하였으며, 아울러 張志聰의 《集注》의 章節을 나눈 것에 依據하여 章節과 段落을 삼아 始作과 끝이 照應하게 하였다. 《傷寒論》은 百病의 全書로써 傷寒에만 利用되는 것이 아니며, 六經六氣의 正·邪 兩方面을 把握하여 正氣의 行은 三陰三陽이니 一에서 三이 되니, 즉 厥陰에서 始作하여 終은 太陽에서 하니 그 運行이 끊임이 없고, 邪氣의 傳達은 三陽三陰이니 이는 三에서 一이 되니 즉 最初에 太陽에서, 最終은 厥陰에 있으며, 그 傳變의 차례에 있어 반드시 順序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證을 따라 治療하며, 傳經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큰 關目이라 여겼다.<sup>20)</sup>

### 4. 陳念祖

陳念祖(約 1753~1823·修園)는 錢塘二張의 뒤를 繼承하여 錯簡에 反對했으며 維護舊論에 가장 큰 影響을 준 사람이다.

陳氏는 “叔和가 編次한 《傷寒論》은 千古에 功이 있으며, 여러 篇이 增入되었는데도 그 名이 冊이 되지 못하니 王履가 애석히 여긴다.”라고 認識하였다.

그러나, 《辨太陽病脈證篇》에서부터 《勞復》에 이르기까지 모두 張機의 原文으로 그 文節의 始作과 끝이 相通하니 王肯堂(1549~1613·字泰)이 말하기를 “神龍이 出沒하는 것과 같아 首尾가 相應하고 鱗甲이 森然하다. 감히 一字라도 增減하지 못하고 一節도 옮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所謂 “增入諸篇”이란 즉 《辨脈》, 《平脈》, 《傷寒例》 “可與不可與”等篇을 가리키는 것으로 “增補하여 그 자세한 것을 補充하려고 한 것이지 결코 그 뜻에 變亂을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王熙의 編次를 辯護하였다. 또한 陳念祖도 二張氏가 나눈 章節을 敦篤하게 지킨 것에 말미암아 일찌기 王履의 三百九十七法에 依支함을 보였으니 역시 “錯簡”說을 容納하지 않았다.<sup>21)</sup>

以上 維護舊論을 主張한 四家의 說은 一致를 이루면서도 같지 않은 바가 있으니 張遂辰은 成氏注를 받들고, 아울러 諸家의 說로써 그 不足되는 바를 補充하였다. 張志聰은 每 成氏注에 異意를提起하여 그 說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張錫駒는 六經六氣의 百病을 強調하여 正과 邪를 區分하였다. 陳念祖는 말하기를 “舊論의 모든 條文은 字字가 모두 옳은 것이니, 오직 그 法을 지켜 仲景의 學問을 傳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 第3節 辨證論治

張機의 《傷寒雜病論》은 漢醫學의 辨證論治를 體系적으로 이룬 經典 著作으로 《傷寒論》을 研究하는 學者는, 어떤 것이 張機의 原論이며, 무엇이 王熙의 增輯인가를 가리지 말고 다만 그 辨證論治의 運用에 깊은 研究를 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는 學者를 “辨證論治學派”라고 稱한다. 이 學派는 大體로 三個의 支派로 나뉘는데, 處方을 中心으로 證을 나눌 것을 主張하는 以方類證派의 柯琴, 徐大春과 治法을 中心으로 證을 나눌 것을 主張하는 按法類證派의 錢潢, 尤怡 그리고 經證의 症狀에 따라 證을 나눌 것을 主張하는 分經審證派의 陳念祖, 包誠 등이 그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 1. 以方類證

이들은 桂枝湯證, 麻黃湯證 등과 같이 處方을 中心으로 證을 나눌 것을 主張하였는데, 柯琴과 徐大春이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 (1) 柯 琴

柯琴(清代初期·韻伯)은 비록 王熙의 編次를 거친 後에 張機의 原篇은 다시 볼 수 없어 章의 次序가 흐트러진 바는 있으나, 張機의 原篇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다고 認識하였다. 그러나, 方有執, 喻昌 등의 改訂을 거친 後에 더욱 張機의 本然의 뜻을 遙遠하게 하여 方·喻氏의 「三百九十七法」, 「傷寒傷衛三綱鼎立」의 說에 對하여 모두 反對 意見을 가지고 있었다.<sup>22)</sup>

그는 《傷寒論》中에 있는 既存의 太陽證, 桂枝證, 柴胡證 등에 着眼하여 반드시 辨證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認識하였다. 즉 論中의 理論을 臨床에 運用하여 最大한 張機의 辨證

思想이 實際에 應用되도록 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張機의 舊論이 編次에 拘碍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가장 重要하게 생각한 것은 張機의 辨證 心法을 闡明하여 最大한 實際 臨床에 應用하는 것이었다.

例를 들면 《太陽篇》에서 桂枝湯, 麻黃湯, 葛根湯, 大青龍湯, 五苓散, 十棗湯, 陷胸湯, 瀉心湯, 抵當湯, 火逆, 痙暑濕 등 十一證類를 모아 羅列하였고, 桂枝湯證類는 關聯되는 脈證十六條와 桂枝壞證 十八條, 桂枝疑似證 一條, 桂枝證과 關聯되는 十八方을 會集하였으니, 例를 들면 桂枝加附子, 桂枝二麻黃一湯 등方을 여기에 모두 列舉하였다. 이런 方式은 證으로써 方을 이름하였고, 方을 따라 證을 連結하였으니, 臨床 치료에 있어 現實의인 意義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sup>23)</sup>

## (2) 徐大春

徐大春(1693~1771·靈胎)의 《傷寒論》治療原則에 대한 見解는 治病에는 方이 定해져 있으나, 病의 變化에는 一定이 없으니, 張機의 用藥原則에 着眼하여 그 定한 理致를 알아 方을 쓰면 어그러짐이 없다고 認識하였다. 用藥에 있어서는 반드시 各各의 條理가 있고, 各己의 法度가 있다. 그러므로 全體의 一百一十三方을 나누어 桂枝, 麻黃, 葛根, 柴胡, 梔子, 承氣, 瀉心, 白虎, 五苓, 四逆, 理中, 雜方을 除外한 十一方이 各類의 主方이 되며, 主方의 아래에 關係되는 湯方의 證候와 治療를, 諸條文을 列舉하여 敍述하였다.

例를 들면 桂枝湯類에 있어 무릇 論中의 桂枝湯 主治諸條와 桂枝湯 主方 아래에 桂枝加附子, 桂枝加桂, 桂枝去芍藥, 桂枝去芍藥加附子, 桂枝加厚朴杏仁, 小建中, ……等方을 고르

게 配列하는 것이다.

其他의 湯證도 이와 같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臨床實際와 研究方法를 結合하여 實로 臨床의 運用에 많은 도움이 된다.<sup>24)</sup>

徐大春과 柯琴은 모두 處方으로 類證을 辨證을 하였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柯琴은 證을 따라 나누었고, 方으로써 證을 이름 붙인 反面에 徐大春은 方에 依據하여 證을 나누었고, 方에 따라 經을 나누지 않았다. 이 두 種類의 方法은 모두 實際 臨床에 應用하기 쉽게 하려는 意圖가 있는 것이다.

## 2. 按法類證

이들은 條文의 性質에 따라 正治, 壞病, 失治, 火劫, …… 등으로 分證하여 治療할 것을 主張하였는데 錢潢과 尤怡가 代表的인 人物들이다.

### (1) 錢 潢

錢潢(清代의 醫家·天來)은 말하기를 “三陽三陰 六經의 證治는 正證과 辨證이 같지 않으니, 그 立法의 原則을 明確히 하여 그 製方의 뜻을 밝힐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錢潢은 그의 著書 《傷寒論證治發明溯源集》에서 六經病證의 立法과 그에 따른 治療를 깊이 探索하였는데, 이것이 곧 錢潢이 《傷寒論》을 研究하는 根本思想이었다.

즉 《太陽上篇》은 中風證治에 屬하는데 中風正治, 太陽壞病, 中風失治, 中風火劫, 中風誤吐, 中風誤汗, 汗下顛倒, 中風誤下, 中風蓄血等 九證으로 나누었다.

《太陽中篇》은 傷寒論治에 屬하는데 傷寒正治, 傷寒失治, 傷寒禁汗, 傷寒誤汗, 傷寒誤下, 傷寒蓄血等 六證으로 나누었다.

《太陽下篇》은 風寒兩傷榮衛證治에 屬하는데 風寒竝感, 風寒火劫, 心下水氣, 證象陽旦, 邪傳陽明 등의 五證으로 나누었다.<sup>25)</sup>

其他 다른 經도 이와 마찬가지로 分類하였다.

그의 治法을 따라 證候를 辨證하는 按法類證에는 모두 方有執, 喻昌의 風傷衛, 寒傷榮, 風寒兩傷榮衛의 學說이 처음부터 끝까지 融會되고, 貫通되어 있다.

### (2) 尤 怡

尤怡(?~1749년·在京)는 《傷寒論》을 많이 研究했는데, 그 治法이 錢潢보다 더 뛰어나었다. 三陽篇을 고루 八法으로 統一하였는데 太陽, 陽明, 少陽經에서는 各各 正治法이 있다.

發汗與否를 살펴서 桂枝, 麻黃湯으로 發汗解毒시키는 것이 太陽經의 正治法이고, 陽明經病은 傳經과 自受의 不同함이 있으며, 腑病은 瀉法, 清法, 溫法이 各各 다른 마땅한 治法이 있는 것이 陽明의 正治法이고 小柴胡湯으로 和解表裡하는 것이 少陽의 正治法이다.

太陽·少陽에는 各各 權變法이 있으니, 氣體虛實의 差를 따라, 臟腑陰陽의 異常으로 비록 傷寒이 뒀은 같으나 麻黃, 桂枝를 쫓지 않고, 小建中, 炙甘草, 大小青龍 및 桂枝二麻黃一 등의 湯으로 나눈 것은 太陽의 權變法이고, 少陽에는 汗下의 禁이 있어 和解와 더불어 汗下의 法이 있으니, 柴胡加桂枝湯, 柴胡加芒硝湯, 大柴胡湯, 柴胡桂枝湯類는 少陽의 權變法이다.

其他 汗下의 過誤나 正氣 損傷의 輕重에 따라 斡旋法, 救逆法, 類病明辨法, 雜治 등으로

張機의 意圖를 法을 세워 治療를 講究하였다.<sup>26)</sup>

尤怡와 錢潢은 모두 張機의 立法을 強調하였지만, 다만 錢潢은 方·喻氏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治法도 역시 자세하지 못하여 基準이 없었다.

그러나, 尤怡는 方·喻氏의 主張을 벗어나서, 風傷衛, 寒傷榮의 眼目에 固定되지 않고 提綱으로 大法를 나누어 千頭萬緒가 모두 하나로 돌아가니 이것이 큰 差異點이다.

### 3. 分經審證

이들은 六經을 中心으로 各經 證候의 輕重을 仔細히 區分하여 治法의 根本으로 삼았는데 陳念祖, 包誠 등이 代表的인 醫家들이다.

#### (1) 陳念祖

陳念祖는 維護舊論을 支持하는 代表的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傷寒論》의 運用에 있어서는 經絡을 따라 證候의 輕重을 治法의 根本으로 삼은 分經審證法을 採用하였으니, 역시 現實的인 意義를 갖추고 있다.<sup>27)</sup>

陳氏는 먼저 太陽病을 經病, 腑病, 變證의 三證으로 分別하였다.

經證은 頭痛, 項強, 發熱, 惡寒으로써 典型 症狀으로 삼았는데 다만 虛實의 區分이 있으니 脈緩, 自汗, 惡風은 虛邪로 宜當 桂枝湯을 쓰는 것이요, 脈浮緊, 無汗은 實邪이니 宜當 麻黃湯을 쓰는 것이라 하였다.

腑證은 表邪가 除去되지 않아 經絡을 따라 膀胱에 入한 것으로 蓄水와 蓄血의 區分이 있어 蓄水證에는 五苓散 使用하고, 蓄血證에는 桃仁承氣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變證은 흔히 發汗과 瀉下를 失宜하여 發生하는데 陰을 쫓아서 오는 症狀과 陽을 쫓아

서 오는 症狀의 差異가 있다. 무릇 汗과 下를 太過하여 正氣를 損傷하면 陽虛證이 되고, 陽虛가 되면 少陰을 쫓아 陰化가 되어 下利厥冷的 四逆湯證과 漏汗不止의 桂枝加附子湯證이 된다.

만약 汗과 下를 失宜하여 熱이 熾盛하여 그 陰液을 傷하게 되면 陽明을 따라 陽化하게 되니 熱結이 在經한 白虎加人參湯證과 下하여 和裡하는 承氣湯證은 陽化에 屬하는 것이다.

陽明經과 少陽經도 經證과 腑證의 區分이 있다. 이런 分經審證의 分類는 六經六氣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하면 能히 그 道를 알 수 없는 것이다.<sup>28)</sup>

#### (2) 包誠

包誠(清代醫家·興言)은 그의 著書 《傷寒審證表》에서 太陽經을 本病中風, 本病傷寒, 兼病, 陽盛入腑, 陰盛入臟, 壞病, 不治病의 七類로 나누었고, 陽明經은 腑病連經, 腑病, 虛證, 不治病의 四類로 나누었으며 少陽經은 經病, 本病, 入陽明病, 入三陰病, 壞病의 五類로 나누었으며, 太陰經은 臟病連經, 臟病 등 二類로 나누었고, 少陰·厥陰經은 모두 臟病連經, 臟病, 不治病의 三類로 나누었다.<sup>29)</sup>

陳念祖와 包誠은 六經을 中心으로 證候의 輕重을 仔細히 區分하여 治法의 根本으로 삼는 分經審證派의 代表的인 醫家들이며, 두 醫家의 見解는 뜻에 있어 仔細함과 省略의 差異가 있을 뿐, 本質的인 差異는 없는 것 같다.

### 第3章 喻昌의 醫學思想

## 第1節 《傷寒論》編次에 對한 喻昌의 見解

### 1. “錯簡重訂”說의 支持

喻昌은 《傷寒論》을 깊이 研究하여,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說을 좇아서, 王熙의 編次와 林億, 成無已 등의 校注를 反對하였다. 그는 王熙가 《傷寒論》을 整理하고, 編次한 것을 가리켜 “아름다운 비단을 가위로 자르고 부수어서 敗絮(헌숨)로써 꿰매어, 後世사람들을 장님과 귀머거리로 만들었다.”<sup>30)</sup>라고 認識하였다. 그리고 《傷寒論》은 王熙의 編纂을 通하여 本來의 面目을 喪失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말하기를 “仲景의 道를, 사람들은 叔和가 밝게 빛나는 줄은 알아도 누가 叔和로 因하여 땅에 떨어진 줄을 알라.”<sup>31)</sup>라고 하였다.

同時에 林億, 成無已의 校注도 역시 크게 反對하여 “그 校正은 仲景의 不幸이요, 이 道의 큰 災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張機原旨를 追溯하여 이에 스스로 《尙論篇》을 지으니, 거듭 《傷寒論》의 編次를 새롭게 하였다. 그는 方有執이 主張한 《傷寒論》의 重訂을 繼承하였으나, 단 그 改訂의 方法에 있어 方氏와 같지 않은 바가 있으니 《傷寒例》一篇의 處理에 있어 方氏는 削除한데 反하여 喻昌은 그대로 두되 論駁하여 말하기를 “萬曆間에 方有執의 著書 《傷寒論條辨》은 처음부터 叔和의 《序例》를 削除하여 尊經의 뜻을 얻으려 하였으나, 過失을免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로 두고 바르도록 꾸짖어야 하니, 그 是非는 이미 定해져 있어 功罪가 分明하다.”<sup>32)</sup>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王叔和의 序例는 傳習된 것이

이미 오래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깊이 들어가 있으니 除去하려고 하나 坊刻이 盛行하여, 여러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려워 原文을 그대로 두고 그 잘못된 바를 옳바르도록 論駁하는 것이다.”<sup>33)</sup> 故로 《尙論篇》의 앞부분에 《駁正王叔和序例》를 싣고, 그 다음에 《傷寒論》三百九十七法을 썼으며, 《傷寒論》條文을 重訂하여 말하기를 “卒病論 六卷은 이미 다시 볼 수는 없으니, 즉 《傷寒論》十卷은 想想하고 讀者의 口授로써 뜻을 얻으니, 故로 그 篇目에 先後差錯이 생기나, 三百九十七法에 依支하여 一百一十三方의 名目으로 가히 校正을 삼는다.”<sup>34)</sup>라고 하였고, 또 “三百九十七法을 들어 大綱의 아래에 나눈 然後에 仲景의 書가 비로서 全書가 되었다. 물론 法 가운데 또 法이 있고 方中에 역시 法이 있다.”<sup>35)</sup>라고 하였다.

所謂 三百九十七法이란 太陽上篇五十三, 中篇五十八, 下篇二十四, 陽明上篇三十九, 陽明中篇三十一, 陽明下篇三, 少陽篇二十一, 合病九, 並病五, 壞病二, 痰病三, 太陰篇九, 少陰前篇二十五, 後篇十九, 厥陰篇五十五, 過經不解病四, 差後勞復病六, 陰陽易病一이다.<sup>36)</sup>

實際로 喻昌은 《尙論篇》에서 三百六十七法을 訂正했으며, 《尙論後篇》에서 春溫三十法을 訂正했다.

喻昌의 《傷寒論》에 對한 研究는 方有執을 따라 “錯簡重訂”의 說을 主張하고, 王熙의 編次와 林億, 成無已 등의 校注를 激烈하게 批判하였다. 그는 經을 綱으로 삼고, 法을 目으로 삼아 《傷寒論》을 거듭 새롭게 改訂하여, 張機 《傷寒論》의 原貌樣 回復을 圖謀하였다.

## 2. “三綱鼎立”說의 主張

喻昌은 太陽病에 “三綱鼎立”說을 내놓았으니, 太陽經中에 風이 衛를 傷하였을 때의 桂枝證, 寒이 榮을 傷하였을 때의 麻黃證, 風寒이 모두 榮衛를 傷하였을 때의 大靑龍湯證이 그 三大綱으로, 이것의 學術淵源을 보면, 일찌기 晉나라 王熙의 《傷寒論辨脈篇》 중에 “風은 衛를 傷하고, 寒은 榮을 傷하며, 榮衛가 함께 病들면, 骨節이 煩疼한다.”고 한 것이 “三綱”說의 根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然後에 唐나라 孫思邈이 “麻黃, 桂枝, 靑龍”의 三方三法을 創案하니, 卽 風傷衛는 桂枝證이요, 寒傷榮은 麻黃證이요, 榮衛가 모두 病들었으면 靑龍證이라 하였다.

그 후 宋代의 成無已가 《傷寒論》을 注解할 때 “衛는 陽이고, 榮은 陰이며, 風은 陽이고, 寒은 陰이다. 같은 氣는 서로 求하므로, 風은 衛分을 傷하게 하고, 寒은 榮分을 傷하게 하며, 風寒에 모두 的中되면 榮衛를 함께 傷한다.”라고 하였다.

許叔微는 《傷寒發微論》에서 “桂枝는 中風을 治하고, 麻黃은 傷寒을 治하며, 靑龍은 中風證에 傷寒脈이 나타나는 것과 傷寒證에 中風脈이 나타나는 것을 治하는 것이다.”라고 主張하였다.

明의 方有執은 “衛中風”, “榮傷寒”, “榮衛俱中傷風寒”이라고 太陽篇을 改訂하였다.

喻昌은 이런 基礎 위에서 正式으로 “三綱鼎立”의 說을 내놓았으니, 즉 “무릇 足太陽膀胱의 病은 主로 表를 主하며, 表에는 榮衛의 不同이 있고, 病에는 風寒의 各己 差異가 있으니, 風은 衛를 傷하고, 寒은 榮을 傷하며, 風寒을 兼하여 받으면, 즉 榮衛가 같이 傷하는 故로, 三者의 病은 各己 境界가 分明하여,

仲景이 桂枝湯, 麻黃湯, 大靑龍湯으로 鼎足과 같이 三法의 大綱을 세우니 三證으로 나누어 治療한다. 風이 衛를 傷하면 桂枝湯을 쓸 것이요, 寒이 榮을 傷하면 麻黃湯을 쓸 것이요, 風寒이 榮衛를 함께 傷하면 大靑龍湯을 쓸 것이다. 用藥에 마땅함을 얻으면 風寒이 즉시 解散되며, 다른 노력이 必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病이 衛에 있는데 榮을 治하고, 病이 榮에 있는데 衛를 治하며, 病이 榮衛에 있는데 하나를 治하고, 하나를 治하지 않으면 轉經錯亂에 이르러 展轉하여 낫지 않아, 源頭一差의 失手는 末流에서는 變證이 百出하니, 다시 몇 種의 節目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하여 三法을 補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紊亂하지 않다.”<sup>37)</sup>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제 大綱이 이미 定해졌으니, 그런 然後에 그 節目을 詳細히 求하여 비로서 仲景書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겠다.”<sup>38)</sup>라고 하였다. 이로 因하여 《太陽篇》原文을 風傷衛의 一類, 寒傷榮의 一類, 風寒兩傷榮衛의 一類로 나누어 編纂하였다.

## “三綱鼎立”說의 形成過程

| 時代 | 人 名 | 主 張                          |
|----|-----|------------------------------|
| 晉  | 王 熙 | 風則傷衛, 寒則傷榮, 榮衛俱病 骨節煩疼        |
| 唐  | 孫思邈 | 麻, 桂, 靑龍, 三法創案               |
| 宋  | 成無已 | 寒則傷榮, 風則傷衛, 解釋風寒之證           |
| 宋  | 許叔微 | 桂枝治中風, 麻黃治傷寒, 靑龍治中風見寒脈 傷寒見風脈 |
| 明  | 方有執 | 衛中風, 榮傷寒, 榮衛俱證, 侵風寒          |

同時에 그는 傷寒을 治療함에 있어서, 六經에서 禁하는 것을, 犯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하였으니, 所謂 六經의 禁하는 바는 즉 足太陽膀胱經은 下를 禁하고, 足陽明胃經은 發汗 및 利小便을 禁하고, 足少陽膽經은 汗, 下, 利小便을 禁하는 것이다.

太陽經에 下를 너무 일찍 하면 반드시 變證이 百出하고, 陽明經에 發汗, 利小便을 하면 거듭 津液을 損傷하여 脈이 반드시 結代가 되고, 少陽經에 發汗을 시키면 陽明을 犯하는 것이요, 下를 시키면 太陽을 犯하는 것이요, 利小便을 시키면 生發의 氣를 陷入시키는 것이다. 三陰經에 이르러서는 비록 一定하게 禁하는 바는 없지만, 다만 胃實이 아니면 여전히 攻下를 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傷寒에 對한 學術思想은 後世에 傷寒을 研究하는 學者들에게 많은 影響을 미쳤으니, 張璐, 吳儀洛, 程應旆, 章楠, 周揚俊, 黃元御 등이 그의 主張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 第2節 溫疫의 三焦論治

喻昌은 傷寒을 깊이 研究하여, 溫病에 對하여 闡明하여 發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 그는 “傷寒으로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이 三이라면, 溫病으로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은 七이 된다.”<sup>39)</sup> 라고 認識하였다.

張機의 《傷寒論》은 傷寒에 仔細하고 溫病에는 大略의이라 할 수 있지만, 溫病의 治法은 이미 그 안에 包含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傷寒論》의 많은 方劑는 同時에 溫熱病을 能히 治療하니 이것이 明確한 例證이 되는 것이다.

그는 《內經》의 뜻에 根據하여 溫病을 三種의 類型으로 나누었으니, 즉 겨울에 寒에 傷

한즉 봄에 반드시 溫病이 된다는 一類, 겨울에 藏精하지 못하면 반드시 봄에 溫病이 된다는 一類, 이미 겨울에 寒에 傷하고 또 겨울에 藏精하지 못하여 봄에 同時에 發病하는 一類 등이다.

이 三種 溫病의 發病病理과 症狀을 分析하면 아래와 같다.

겨울에 寒에 傷하여 溫病이 된 것은 寒邪가 肌膚에 鬱하여 있다가 春월에 溫氣를 感하여 비로서 發하는 것으로 이것은 陽明經에 있던 오랜 鬱熱이 太陽으로 外達하는 것이다. 或 약간 惡寒하며 發熱하면, 解肌를 주로 하여 治療하며, 方은 비록 桂枝法을 으뜸으로 삼으나, 辛涼苦寒의 藥物을 相合하니, 桂枝加葛根, 葛根加柴胡, 葛根加黃芩黃連 등의 湯을 쓴다. 溫熱病의 表證이 間間이 나타나며 裡證이 많이 나타나면, 治法은 마땅히 裡를 다스리는 것을 주로 하고, 解肌를 兼하여 쓴다.

또한 大熱하여 전혀 惡寒한 症이 없으면, 清熱에 重點을 두어 白虎湯을 用한다. 正氣가 虛하면 人蔘을 加하고, 濕이 重하면 蒼朮을 加하며, 表邪가 除去되지 않았으면 桂枝를 加한다. 또 表邪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裡가 이미 實하면 大柴胡湯을 用하여 表裡를 兩解할 것이다. 혹은 邪가 陽明에 있어 매양 譫語, 發斑, 衄血, 蓄血, 發黃, 脾約 등의 熱證을 兼하면 清熱, 攻下, 養血, 解毒, 滋陰의 諸法中에 應用하며, 方으로는 承氣湯, 玄參升麻湯, 竹葉石膏湯, 黃連解毒湯, 黃芩黃連阿膠湯, 黑膏, 犀角地黃湯 등을 使用한다.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하여 溫病이 된 것은, 腎臟이 虧虛하여 寒邪가 骨髓로 侵入하여 머물렀다가 鬱하여 熱로 化하는 것으로, 春氣

가 疎泄할 때 吸引된 腎邪가 內動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治法은 發汗散表하는 것을 禁하니, 마땅히 腎中에 깊이 들어가서 邪를 밖으로 끌어내는 藥을 먼저 使用해야 할 것이다. 처음 發病한지 二三日間에 있어서는 發熱하며 脈이 沈하여, 약간 數한 脈이 나타나지 않으면, 主로 麻黃附子細辛湯, 麻黃附子甘草湯 등의 “溫經散寒”하는 方法을 쓴다. 또 病邪가 膀胱에 傳하여 手足에 熱이甚하고 便血을 보면, 四苓散에 桂枝와 大黃을 넣어 膀胱의 熱을 奪한다. 또 病邪가 內結하여 腎水가 枯渴하거나 或은 胃가 實하여 便秘가 되고, 自利清水, 或은 口咽이 마르면 應當이 急히 下를 하여 陰液을 保存할 것이니, 大承氣湯이 마땅하다. 以外에도 心煩不眠에는 和陰一法을 用하니 黃連阿膠湯을 준다.

이미 겨울에 寒에 傷하였고, 또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하여 溫病이 된 것을 이음하여 “兩感溫證”이라 한다. 이것은 겨울에 寒에 傷하면 陽分이 邪를 받아 太陽膀胱經이 主하는 바요, 겨울에 精을 藏하지 못하면 陰分이 邪를 받아 少陰腎經이 主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太陽·少陰이 서로 標本이 되어 그 證狀이 同時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頭痛”이 있으면 이는 表證이요, 口乾, 煩滿이 있으면 이는 裡證인 것이다. “兩感溫證”의 治法은 先裡後表法과 先表後裡法의 二個方面으로 分離하여 把握하였다.

先裡後表法은 溫法과 下法을 取하는데 陰이 盛하고 陽이 微하면 溫法으로 主를 삼고, 陽이 盛하고 陰이 微하면 下法으로 主를 삼는다. 그리고, 陰陽이 錯雜하면 그 偏勝한 바를 調和하는 것을 主로 삼는다.

그 具體적인 治法은 만약에 平素에 消瘦하

고 兼하여 內鬱의 邪가 腎水를 灼하면 종종 熱熾枯槁의 象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急히 下를 하여 將次 끓어질려는 水를 求하여야 하니, 먼저 大承氣湯을 用한 뒤에, 다시 太陽의 邪를 治療한다. 或은 陰水가 將次 竭하여 眞陽이 發露되어, 밖으로 躁擾가 나타나면, 이는 虛陽亡越의 重證이니, 반드시 먼저 在經의 陽을 溫하게 하고, 兼하여 그 陰은 益하여 그 根本을 培養하여야 한다.

先表後裡法은 例를 들면 太陽經과 少陰經이 같이 病이 들었으나, 大熱惡寒, 頭痛如破 같은 表證이 甚하면 먼저 表를 解하는 藥物에 少陰을 治療하는 藥物을 兼하는 것이다.

喻昌은 傷寒發病은 表邪가 外에서 內로 入하는 것이며, 溫病은 伏邪가 內에서 外로 達하는 것으로 治法의 標本에 先後의 差異가 있음을 認識하였다. 그리고 溫熱病에 陰液의 保存을 重視하여 “다만 熱邪가 陽明에 오래 머무르면 胃中の 津液이 傷하는 故로 急히 發汗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過汗이 되어 거듭 그 津液을 損傷하는 것과, 마땅히 下하여야 하나 下를 急히 하지 못하여 그 津液을 保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sup>40)</sup> 라고 하였다. 또 “眞陽이 熱邪久耗로 亢陽을 抑制하지 못하여 燎原이 不息하는 것이다. 故로 溫病을 앓는 사람이 邪氣가 退하고 陰氣를 保存시키는 사람은 가히 살 수가 있다.”<sup>41)</sup> 라고 하였다.

以上の 論理는 後世 溫病學說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喻昌은 溫疫의 病機와 辨證을 三焦論으로 說明하였다. 즉 “傷寒의 邪는 먼저 身의 背를 行하고, 다음에는 身의 前을, 그 다음에는 身의 側으로 傳하며, 外廓에서 안으로 傳入한

다. 反面에 溫病의 邪는 中道로 直行하여 三焦로 流布되니, 上焦는 淸陽이 되는 故로 淸邪는 上部를 쫓아 들어오고, 中焦는 陰陽交界로 무릇 淸濁의 邪가 반드시 이 區分에 의하여 入하지만 甚한 것은 三焦가 서로 섞여서 나타난다.”<sup>42)</sup> 라고 하였다. 또 淸邪는 上焦를 쫓아 入하니 이는 “사람의 鼻氣는 天에 通하는 故로, 陽中霧露의 邪는 淸邪가 되기 때문에, 鼻息을 쫓아 上으로 陽에 入하게 되어 發熱, 頭痛, 項強, 頸攣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俗稱 大頭瘟, 蛤蟆瘟의 說과 符合된다. 所謂 大頭瘟이라는 것은 頭面, 腮頤가 부어서 瓜瓠와 같은 것이고, 蛤蟆瘟이라는 것은 喉痺失音하며, 頸筋이 脹大한 것이다.”<sup>43)</sup> 라고 하였다. 濁邪는 下焦를 쫓아 入하니, 이는 “사람의 口氣가 地에 通하는 故로 陰中 水土의 邪는 飲食 濁味가 口舌을 쫓아 아래로 陰에 入하여 內栗, 足膝逆冷, 便溺妄出, 淸便下重하게 된다. 이는 絞腸瘟 軟脚瘟의 說과 符合되는데 絞腸瘟이라는 것은 腸鳴, 乾嘔, 水泄不通인 것이며, 軟脚瘟이라는 것은 便淸泄白하여 足이 重하여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sup>44)</sup> 라고 하였다. 淸濁의 邪는 中焦를 쫓아 區分이 되니 “즉 鼻와 口를 쫓아 들어온 邪는 반드시 먼저 中焦에 注入하여 다시 上下로 分布되는 故로 中焦가 邪를 받아 治療하지 않으면 胃中이 濁하게 되어 榮衛가 不通되어 血凝不流하게 된다. 俗稱 瓜瓠瘟, 疔瘡瘟 등證이 그것이다. 瓜瓠瘟이라는 것은 胸高脇起하며, 嘔汁이 血과 같은 것이며, 疔瘡瘟이라는 것은 遍身이 紅腫하며 瘤와 같은 것이다.”<sup>45)</sup> 라고 하였다.

治療에 있어 “傷寒은 外廓에 있어 發表하면 흩어지지만 疫邪는 中道를 行하는 故로 發

表로써 散하지 않는다. 그러나 傷寒의 瀉가 胃腑에 入하면 腹滿便堅하여 가히 攻下할 수 있는 것처럼 疫이 三焦에 있어 漫散하여 不收하면 下하는 것도 可能하게 된다.”<sup>46)</sup> 라고 하였다.

이로 因하여 疫病을 上中下 三焦로 나누어 辨證施治하는 것을 創案하였는데, “上焦는 霧와 같아 上升시켜 逐邪하며 兼하여 解毒하며, 中焦는 漚와 같아 疎通시켜 逐邪하며 兼하여 解毒하며, 下焦는 瀆과 같아 決하여 逐邪하며 兼하여 解毒해야 한다. 榮衛가 이미 通하면 熱을 乘하여 病邪를 驅逐시키며 潛滋하지 마라.”<sup>47)</sup> 라고 하였다.

故로 上焦는 升麻葛根湯, 葛根柴胡湯을 選用하며, 中焦에는 小柴胡湯, 小柴胡加芒硝湯, 下焦에는 五苓散, 猪苓湯, 大承氣湯, 大柴胡湯 등을 各各 選用한다. 解毒에는 黃連解毒湯, 黑膏 등의 方을 常用한다. 同時에 芳香正氣藥을 미리 服用하여 溫疫을 豫防하여 病邪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喻昌의 溫疫病에 三焦로 나누어 辨證施治하는 說은 當時 醫家들에게는 重視되지 못하였지만 後에 吳瑭이 溫病의 三焦辨證體系를 確立한 것을 볼 때 喻昌의 影響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第3節 秋燥論

喻昌의 著書 《醫門法律》에 나오는 “秋燥論”은 가을에는 燥에 傷한다는 것을 闡發하는 것으로, 자못 獨特한 見解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 “秋傷于濕, 上逆而咳”<sup>48)</sup> 와 《素問·陰陽應象大論》에 “秋傷于濕, 冬生咳嗽”<sup>49)</sup> 의 文章을 歷代醫家들은 大部分 이것은 長夏 濕土의 氣에 傷한 所

致로, 이것은 長夏의 氣가 끝나고 곧 가을의 燥氣가 始作되기 때문이라고 認識하였다.

그리고, 《內經》病機十九條中에도 홀로 燥氣에 關한 사항만 빠져 있다. 그리하여 그는 認識하기를 “무릇 가을에는 燥에 傷하는데, 모두 濕에 傷한다고 한 것은 歷代諸賢들이 옛 글을 그대로 따라서 解析한 것으로 그 訛傳된 것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喻昌은 “가을에 濕에 傷했다는 것은 마땅히 燥에 傷했다는 誤다.”라고 認識하였다. 그는 “燥와 濕은 霄壤(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燥라는 것은 天의 氣요, 濕이라는 것은 地의 氣니, 水流濕하고 火就燥하니 이는 각己 그 類를 쫓는 것이다.”<sup>50)</sup>라고 말하였다. 이런 理由로 “봄에는 地氣가 動하여 濕이 勝하고, 가을에는 天氣가 肅하여 燥氣가 勝하므로, 故로 春分以後에는 濕이 秋分以後에는 燥가 各各 그 政을 司한다.”<sup>51)</sup>고 하였다. 또 “春에는 風에 傷하고, 夏에는 暑에 傷하며 長夏에는 濕에 傷하고, 가을에는 燥에 傷하며, 겨울에는 寒에 傷한다. 六氣가 四時에 配合되는 것과 五運과 서로 背定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sup>52)</sup>라고 하였다. 春, 夏, 秋, 三時에는 모두 그때를 主하는 氣에 傷하여, 가을에는 燥氣가 主氣로, 燥氣에 傷하는 것이 定한 理致이거늘, 惟獨 濕에 傷한다는 것은 不合理한 것으로, 四時를 쫓아 六氣가 各各 그 主하여 匹하는 바가 있으니, 喻昌의 主張이 比較的 正確하다고 보겠다.

燥病은 一般的으로 火熱로 因한 所致이니, 火熱이 勝한 즉 金이 衰하여 風을 盛하게 하니, 風은 能히 濕을 이기고, 熱은 能히 津液을 耗散하니, 故로 風火熱의 氣는 水土를 勝하여 燥가 되는 것이다. 다만 “秋燥” 이것

이 燥氣로서 직접 病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喻昌은 秋燥의 形成은 “大熱한 後에 이어서 涼이 生하고, 涼이 生한 後에 熱이 解하여, 漸漸 涼이 커지면서 이에 燥氣가 行한다.”<sup>53)</sup>라고 認識하였다.

다만 이 燥氣는 寒溫과 다른 바가 있어 항상 火熱에 치우치니 이 燥는 金氣로 “金位의 下에는 火氣가 承한다.”라고 하였으니 故로 燥가 이루어지면 兼하여 化火하여 熱이 되는 것이다.

喻昌은 이를 다시 病理方面에 結合시켜서 《內經》에 말하기를 “燥가 勝하면 乾이 된다.”<sup>54)</sup>와 “그 病은 外로는 皮膚가 皴揭되고 內로는 精血이 枯燥되어 津液이 耗損되고 種種 變化가 生하는데 이는 모두 燥로써 傷하는 바요, 이로 因하여 역시 “燥”이라 불리게 되었다. 만약에 燥氣가 肺를 傷하면 耗傷 肺津하여 治節이 權衡을 잃어 清肅의 令이 下行하지 못하여, 드디어 積鬱, 咳喘, 等證이 이루어진다.”<sup>55)</sup>라고 認識하였다.

이로 因하여 그는 《素問·至真要大論》의 病機中 “모든 氣의 積鬱은 모두 肺에 屬한다. 모든 痿, 喘, 嘔는 모두 上에 屬한다.”<sup>56)</sup>라고 한 것은 모두 燥氣가 肺를 傷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모든 氣의 積鬱이 肺에 屬할 때, 이때는 肺의 燥에 屬하는 것이지, 肺의 濕에 屬하는 것이 아니며, 眞實로 肺氣가 燥하지 않다면, 모든 氣가 清肅의 令을 稟하여 全身에 고루 퍼질텐데 어찌 積鬱에 이르겠는가?

또 “모든 痿와 喘, 嘔가 上에 屬한다.”라고 한 上은 역시 肺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肺燥가 甚하여, 肺葉이 痿하여 不用하며, 肺氣가 逆하니 喘鳴하고, 飲食이 胸膈을 通過

하기가 어려워 嘔吐하며, 이 三種의 症狀은 모두 燥證의 極인 것이다. 經文에 原來 “秋氣에 逆한 즉 太陽이 不收하고 肺氣焦하여 滿하다.”는 글이 있으니 가히 濕病이라 稱할 수 있겠는가?”<sup>57)</sup>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그는 病理方面의 가을에 燥에 傷한다는 것과, 燥한 것은 肺를 傷한다는 것을 說明하는 것으로, 肺가 燥함으로 因하여 上部의 病變이 發生되는 理由를 說明하였다.

喻昌은 燥病의 治療에 辛香行氣의 藥物을 忌用했는데, 이는 津液을 損傷시키고 燥를 助長시키는 것을 免하기 위해서이며, 반드시 甘柔滋潤의 藥物로 清燥救肺를 시킬 것을 主張하였는데, 이는 肺氣가 潤해지면 清肅하여 氣가 行하고, 治節이 權衡을 이루어 臍鬱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痿와 喘鳴이 스스로 나오며 胃氣의 影響을 받아, 能히 氣가 下行하여 嘔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原理에서 創案한 清燥救肺湯은 後世의 名方이 되어 清燥救肺를 시키는데 效果가 卓越하였다.

清燥救肺湯의 方劑構成을 보면 桑葉, 石膏, 甘草, 人蔘, 胡麻仁, 阿膠, 麥門冬, 杏仁, 枇杷葉 등을 使用하였다. 아울러 痰多에는 瓜蒌仁, 貝母를 加하고, 血枯에는 生地黃을 加하고, 熱이 甚하면 犀角, 羚羊角, 或은 牛黃 등을 加하는 加減法을 運用하였다.

이 方劑의 藥物 選擇은 “火를 治함에는 苦寒한 藥을 使用하고, 燥를 治함에는 甘寒한 藥을 用하며, 火鬱에는 發散을 하며, 燥가 勝하면 반드시 潤劑를 使用하며, 火는 가히 直折을 하고, 燥는 반드시 濡潤劑를 用하여야 한다.”의 精神에 符合된다.

方中の 桑葉은 肺燥를 轉宣하고, 石膏는 肺胃의 燥熱을 淸解하여 이 두 가지가 合하여

燥病의 源을 治療하는 것이다. 阿膠, 麥門冬, 麻仁 등은 潤肺滋液하여, 肺가 淸潤을 得한즉 治節의 權衡이 復健된다. 人蔘甘草를 用하는 것은 益氣生津한즉 《內經》의 “損氣肺者 益其氣”의 意味이다. 杏仁, 枇杷葉은 그 苦味를 佐로 하여 肺氣를 泄한다. 이 모든 藥物이 合하여 肺金의 燥를 滋潤하게 하여 肺氣의 臍鬱이 肅降을 얻게 된다.

喻氏가 方義中에 說明하기를 “이 處方을 清燥救肺湯이라 命名함은 大略 胃氣으로써 爲主함이니, 胃土는 肺金의 母가 되기 때문이다.

天門冬은 能히 肺의 津液을 保存하나, 味가 苦하며 氣滯하기가 쉬워 도리어 傷胃沮痰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使用하지 않았다. 知母는 能히 腎水를 滋養하고, 肺金을 淸肅하게 하나 역시 苦하니 使用하지 않았다.”<sup>58)</sup> 라고 하였으니 喻氏가 清燥救肺湯을 作方함에 理論과 證에 根據하여 藥을 選擇하였으니 이로써 足히 喻昌의 說은 믿을 수 있고 證明할 수 있는 것이다.

#### 第4節 大氣論

“氣”가 人體에 作用하는데 있어 《內經》에서부터 歷代醫家에 이르기까지 이미 論述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特別히 胸中の 大氣에 關하여 闡發한 이는 孫一奎(明代의 醫家·文垣)와 喻昌을 除外하고는 그리 많지 않다.

喻昌은 胸中大氣와 人體의 形成 및 一切 生理活動에 關係가 있다고 認識하였다. 《素問·五運行大論》에 말하기를 “地는 사람의 밑에 있어 太虛의 中에 있으며, 大氣가 받쳐 들고 있다.”<sup>59)</sup> 라고 했다.

喻昌은 自然界中 地의 四周가 混合되어 大氣가 升擧하는 바가 있어 이로 因하여 大氣

의 運動이 쉬지 않아 風, 寒, 暑, 濕, 燥, 火 等の 모든 氣에 變化가 있고 生, 長, 化, 收, 藏의 發展 過程이 있게 되며 사람과 自然現象이 서로 適應하는 故로 人體의 모든 活動도 生長壯老의 過程을 거치니, 이 모두 人身과 大氣가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직 氣로써 形이 이루어지며, 氣가 모이면 形이 存在하는 것이요, 氣가 흩어지면 形이 亡하는 것이다.”<sup>60)</sup> 라고 認識하였다.

또 “五臟六腑, 大經小絡이 晝夜로 循環하는 것이 쉽이 없는데, 이는 반드시 胸中の 大氣에 힘입어 그 사이를 運行하는 것이다. 大氣가 한번 衰하면 出入이 廢하고, 升降이 息하며, 神機가 滅하니, 氣가 孤立되어 危殆롭게 된다.”<sup>61)</sup> 라고 하여 人體의 形成과 人體의 一切 生理活動이 全部 大氣에 依支하여 維持된다고 認識하였다.

喻昌은 “大氣는 곧 諸氣를 主持하는 胸中陽氣다.”라고 생각하여 大氣는 胸中을 두드리며 모이는 것으로 肺周圍의 陽氣를 包括하여 싸고 있는 것이나 胸中の 氣하고는 다르다고 主張하였다. 膻中은 이미 臣使의 官이니 그 職位가 있어 그 機能이 一定의 局限性을 가져서 可히 大氣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喻昌이 말하는 “大氣”란 卽 胸中の 陽氣로, 이는 모든 氣의 全身活動의 基本 能力을 支持하는 것이다. 그는 “身形中에 榮氣, 衛氣, 宗氣, 臟腑之氣, 經絡之氣가 있어 各各 區分이 된다. 榮衛, 臟腑, 經絡을 統攝하여 全身을 쉬지 않고 돌며, 身體 마디마디를 모두 神靈스럽게 通하게 하는 것이, 모두 胸中の 大氣主持에 힘입은 것이다.”<sup>64)</sup> 라고 하였다.

以外에도 喻昌은 《金匱要略》에 “大氣一轉하여 그 氣를 散한다.”라는 것을 引用하여

胸中陽氣가 充分하여, 全身을 고루 分布하면, 能히 疾病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說明하였는데, 예를 들면 心下에 단단한 덩어리가 있어 盤과 같으며, 마치 술잔(杯)의 가장자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은, 水飲의 病으로, 이는 胃中の 陽이 不布하여 水飲陰邪가 凝聚하여 往往 胸陽을 損傷한 것으로 分析하였다. 故로 “水陰이 오랫동안 胸中에 모여 흩어지지 않아 그 網縕의 氣가 損傷되어, 그 心下가 단단하기가 盤과 같으니, 이는 大氣를 가리어 透過하지 못한 것이니 桂枝去芍藥加麻黃을 用하고, 附子로 그 胸中の 陽氣를 通하여야 한다.”<sup>66)</sup> 라고 하였다. 同時에 醫師들에게 警戒하여 말하되 病을 治療함에 胸中の 大氣(陽氣)를 損傷하지 않아서 痞塞 痺痛의 患을 免할 것을 強調하였다.

“大氣論”은 人體 生理, 病理作用에 胸中陽氣가 있음을 闡明하여 後學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그 代表的인 例로 張錫純(1860 ~ 1933년·壽甫)을 들 수 있는데, 大氣下陷病의 認識과 治療에 그 方은 비록 東垣을 본받았지만 그 理論은, 實은 喻昌에게서 根源된 것이다.

張錫純은 말하기를 “胸中에 다다른 氣를 大氣라고 名稱한 것은, 眞實로 能히 全身을 支持하여 모든 氣의 綱領이 되고, 肺外를 包含하고 舉하여 呼吸을 맡은 樞機가 되기 때문에 重要하게 여겨 大氣라고 하였다.”<sup>64)</sup> 라고 하였다.

張錫純의 大氣에 對한 見解를 綜合하면, 大氣는 先天의 腎氣에서 發生하고, 後天의 水穀之氣에 依해 培養되며, 胸膈에 모여 쌓인다. 大氣는 다만 모든 氣의 綱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몸을 돌고 있는 血脈의 綱領이기도 하

며, 무릇 榮衛의 敷布, 中氣의 化穀, 三焦의 決瀆을 잘 管掌하여 五臟六腑에 波及하여 四肢百骸의 氣血, 陰陽이 그치지 않게 하며, 全身을 支持하여 精神을 振作시키고, 心思, 腦力, 動作까지도 이 氣에 힘입지 않은 바가 없다고 認識하였으니, 이 모두가 喻昌의 說과 一致하는 面을 갖고 있는 것이다.

#### 第5節 喻昌의 胃病證에 對한 見解

喻昌은 그의 著書 《寓意草》中에 胃의 病證과 治療에 있어 獨特한 見解를 나타내고 있으니, 卽 胃脘을 三等分하여 各各의 特徵을 記述하여 治療原則을 樹立하였다.

胃는 收納을 主하며, 收納된 水穀을 腐熟시켜 “氣血의 海”와 “五臟六腑의 總司”가 된다. 그래서 歷代醫家들은 胃를 “後天의 本”이 된다고 共通的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胃의 部分的인 機能과 特徵에 對하여서는 喻昌의 說이 比較的 詳細하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胃는 비록 하나이나 三脘의 區分이 있다. 卽, 上脘은 하늘을 닮아 清氣가 많이 있고, 下脘은 땅을 닮아 濁氣가 많으며, 그 清氣와 濁氣를 能히 升降시키는 것은 오로지 中脘에 依支하여 運用된다.”<sup>65)</sup> 라고 하였다.

아울러 進一步하여 말하기를 “上脘은 氣가 많고, 下脘은 血이 많으며, 中脘은 氣血이 모두 많다.”<sup>66)</sup> 라고 하였다. 現代 解剖學的으로도 上脘은 噴門과 胃底를 包括하고 있어 空氣가 많아 上脘을 切診하면 鼓音이 나타나고, X-선 檢査 所見도 胃泡氣體의 影象이 나타난다. 下脘은 幽門과 大彎曲 등의 位置에 該當하는데, 항상 胃液, 飲食, 粘液物質이 있어 이들을 比喻하여 “濁陰”이라고 하여 그 論

理가 一致함을 알 수 있다.

治療에 있어서도 上脘이 아프며, 脹滿한 者의 病機는 宜當 氣滯로써 主를 삼아야 하고, 治法으로는 理氣로써 主를 삼아야 하며, 胃氣가 鬱滯한 사람은 마땅히 理氣와 和胃를 시켜야 하고, 肝氣가 犯胃한 사람은 疎肝和胃를 시키는 것이 治療에 있어 基準이 됨을 알 수 있다.

下脘痛이 있고 脹滿한 사람은, 證勢를 考慮하여 濕의 沮滯, 또는 瘀血, 食滯 등의 病因을 생각해 보아야 하며, 痰飲이 胃에 沮滯되고 升降이 實調되면 下脘에 漉漉한 소리가 들리며, 胃의 絡이 損傷되면, 胃의 下脘 部近에서 出血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喻昌이 말한 “黑水是 胃底에서 온다.”<sup>67)</sup> 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第6節 喻昌 用藥原則의 特徵

##### 1. 先議病 後用藥

이는 喻昌의 著書 《寓意草》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篇名으로 먼저 病의 原因과 病理을 正確히 안 然後에 藥을 使用하라는 뜻이다.

그는 말하기를 “藥이란 病을 治療하는 것으로, 病을 正確히 分別해 내어, 수많은 藥物 가운데에서 알맞은 藥을 選擇하여 使用한즉, 病이 잘 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즉 雜多한 病證에 사로잡혀 藥을 正確히 쓰지 못하게 된다. 무릇 藥物들은 모두 人身을 損傷시킬 수 있는데 하물며 藥性이 猛烈한 藥物을 잘못쓰면 어떻겠는가?”<sup>68)</sup> 라고 하여 病情과 辨證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리고 《靈樞》《素問》《甲乙》《難經》 등과 같은 醫學理論의

가장 基本書이자 病因·病理·病情 等の 가장 中心이 되는 書籍들은 研究하지 않고, 後世의 處方이나 실려 있는 冊을 마치 貴한 寶貝나 되는 것처럼 받들어 使用하는 것을 深히 憂慮하였다. 예를 들어 말하기를 “朱震亨(1281~1358年·丹溪)의 《脈因證治》는 먼저 脈을 論하고, 다음에 病因과 病證을 말한 後에야 비로서 治法을 論했는데, 이 冊은 보질 않고, 모두들 《心法》이라는 雜多하게 處方이나 쓰여 있는 冊을 본다.”<sup>69)</sup> 라고 慨嘆하였다.

喻昌이 指摘한 “治病에 반드시 먼저 病을 알고, 病을 안 然後에라야 비로서 藥을 써야 한다.”는 主張은 醫學에서 病因·病理의 認識과 辨證施治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것으로 疾病의 治療에 모두 精密하게 分析하여 그 原流를 찾아 診斷하고 治法을 講究할 것을 強調하는 것이다.

## 2. 急流挽舟

喻昌은 여름과 가을에 熱, 暑, 濕의 三氣에 感하여 痢疾이 이루어지니 治療는 반드시 外를 쫓아 出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汗法을 用하여 먼저 그 外를 解하고, 後에 그 內를 調理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또 表에서 病邪를 잡지 못하여 外邪가 裡에 들어가 病이 비록 오래 되었으나, 여전히 邪氣를 外로 引導하여 出하게 하는 治法을 使用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였는데, 이것은 痢疾治療의 獨特한 見解로 이름하여 “急流挽舟”法이라 하며, 그 治療의 方劑는 人蔘敗毒散을 採用하였다.

“急流挽舟”法은 喻昌이 痢疾을 다스리는 方法의 하나로 痢疾治療에 새로운 經路를 開拓하여 後世에 “獨特의 秘가 있다.”라고 稱

頌을 들었으나, 다만 이것은 痢疾治療의 한 方法일 뿐이니, 痢疾의 臨床治療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情況에 根據하여, 分別 施治하여야 할 것이다.

## 3. 單腹脹 治療의 三法

鼓脹症을 喻昌은 單腹脹이라 하였다. 《內經》에 일찌기 論述된 바가 있고, 歷代 醫家들이 모두 腹脹, 鼓脹, 蠱脹 등은 沈痼의 重證으로 보아 豫候가 좋지 않다고 보았다. 그 病機는 大概 氣, 血, 水, 蟲 등이 腹內에 쌓여서 肝, 脾, 腎 三臟이 邪를 받아 鼓脹에 이르게 된다. 治療에는 매양 “去苑陳莖”가 原則인데 攻邪의 法을 常用하였다.

그러나, 喻昌은 이것에 比하여 獨創의인 見解를 나타내었으니, 病因方面에 있어 “癥瘕, 積塊는 腹病의 根으로 日積月累되어 배가 箕와 같은 것을 가리켜 單腹脹이다.”<sup>70)</sup>라고 認識하였다.

그 病機方面에 있어서는 水裡, 氣結, 血凝 등의 說을 내놓았다. 特히 “單腹腫은 中州의 地로써 오랫동안 四運의 抽가 막히어, 淸한 것이 上升하지 못하고, 濁한 것이 내려가지 못하여, 淸濁이 相互結聚되어 단단하여 깨어지지 않으니, 實은 脾氣 衰微의 所致인데, 어떻게 脾를 瀉하는 藥을 濫用하리오?”<sup>71)</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에 傳하는 모든 處方이 사나운 攻劫의 法을 따랐으니, 元氣를 耗傷하고, 脾胃를 虧損하니, 한번은 可能하나 두번은 不可한 藥들이다. 一時的인 效果는 얻을 수 있으나, 배가 부르면 다시는 治療하는 方法이 없다.”<sup>72)</sup>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鼓脹을 治療하는 三法을 創案하니 “培養一法하니, 이는 元氣를 補益하는 것이요, 招納一法하

니, 이는 陽氣를 升擧하는 것이요, 解散一法 하니, 이는 魂門을 開하여 淨府를 潔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三法中에 비록 瀉에 關하여서는 言及 하지 않았으나, 이 瀉法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sup>73)</sup> 라고 하였다.

脹症을 總括하면 이는 本은 虛한데, 表는 實한 것이니, 喻昌은 攻補, 消法을 하나로 融和시켜, 病機와 一致되게 治療하는 方法을 取하였다.

### III. 喻昌의 醫學思想이 後世에 미친 影響

東洋醫學은 《黃帝內經》이 이루어진 後에 그 理論體系가 確立되었으나, 具體的인 疾病의 治療에 藥物療法를 使用한 것은 張機의 《傷寒雜病論》이 나온 以後이다. 그리하여 明代 方有執에 의한 《傷寒論》의 “錯簡”說이 나오기 前까지는 王熙의 編次에 依한 《傷寒論》이 張機의 《傷寒雜病論》을 代身하였다.

清代初期에 喻昌이 “三綱鼎立”說로 《傷寒論》의 原形 回復을 圖謀하고자 努力하자, 많은 醫家들에 依하여 《傷寒論》에 對한 깊은 研究가 이루어졌다. 喻昌의 弟子中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徐彬(忠可)으로, 그는 喻昌의 論을 繼承하여 張機의 學問을 研究하였으며, 《傷寒圖論》, 《傷寒一百十三方發明》, 《金匱要略論注》 등의 書를 編纂하였다.<sup>74)</sup>

張璐(1617~1700·路玉)는 《傷寒論》을 三十年이나 研究하였으나, 諸家의 主張이 많 이 갈라지기만 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

서 慨嘆하였으나, 方有執의 《條辨》과 喻昌의 《尚論篇》을 보자 갈라지기만 했던 理論이 漸次 하나로 貫通되며, 더욱 喻昌의 說을 받들어, 《傷寒續論》과 《傷寒緒論》을 지었다.<sup>75)</sup>

黃元御(清代醫家·坤載)는 일찌기 《傷寒論》의 錯簡을 말하여 方·喻氏의 學說을 토대로 다시 五運六氣의 뜻을 暢達하여 傷寒의 諸病變을 研究하였고,<sup>76)</sup> 周揚俊(17世紀 中葉·禹載)은 方有執과 喻昌의 說에다 자기의 說을 補充하여 《傷寒論三注》라는 冊을 지어 二家의 說을 追從하였다.<sup>77)</sup>

吳儀洛(18世紀· 존程)은 喻昌의 《尚論篇》에 對하여 至極히 崇尚하였다. 《傷寒論》이 王熙(叔和)의 編次를 거친 後 大綱이 節目에 混入되어 가히 실마리와 끝을 찾지 못하던 것을, 喻昌이 그 大綱을 받들고, 그 節目을 詳細히 하여 大綱의 아래에 三百九十七法을 分類하여 分經의 妙를 얻은 것에 힘입어 《傷寒分經》이라는 冊을 지어 喻昌의 《尚論篇》을 補完하였다.<sup>78)</sup>

한편, 喻昌은 溫病을 三種의 類型으로 나누어 把握하였으며, 辨證施治에 三焦理論을 導入하여 後에 吳瑭(1758~1836·鞠通)은 그의 著書 《溫病條辨》에서 喻昌의 三焦 辨證體系를 많이 引用하였다.

이렇듯 喻昌은 다른 醫家들보다 더욱 實際的인 意義를 가진 著書를 남김으로 하여 後에 많은 醫家들의 研究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傷寒과 溫病에 對한 思想은 後世의 傷寒理論의 發展과 溫病學의 形成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 IV. 結 論

清代初期에 證據에 依해서만 理論을 세운다는 實證的인 研究態度에 힘입어 醫學에서도 金元以來의 各家의 學說을 벗어나 곧 바로 聖賢의 心法을 探求하고자 하였다.

喻昌은 明의 萬曆 十二年(西紀 1583)에 태어나서 淸의 康熙三年(西紀 1664)에卒하여 八十歲를 산 사람으로 그의 實證的인 醫學思想을 研究하여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喻昌은 張機의 《傷寒論》이 王熙와 林億, 成無已의 校注를 거친 後에 本來의 面目을 喪失하였다고 認識하여,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說을 따라 《傷寒論》原文內容을 三百九十七法으로 分類하여 六經의 아래에 놓았다.

2. “三綱鼎立”의 學說은 風이 衛를 傷하였을 때의 桂枝證, 寒이 榮을 傷하였을 때의 麻黃證, 風寒이 모두 榮과 衛를 傷하였을 때의 大靑龍湯證으로 要約되며, 이미 前代의 醫家들에 依해 “三綱鼎立”의 內容이 있었으나, 正式으로 “三綱鼎立”의 名稱을 使用한 사람은 喻昌이다.

3. 喻昌은 溫病을 三種의 類型으로 나누어 把握하였으며, 辨證施治에 三焦理論을 導入하여, 後에 吳瑭(1758~1836·鞠通)이 溫病의 三焦 辨證體系를 確立하는데 많은 影響을 주었다.

4. 《醫門法律》中の “秋燥論”은 《內經》에 가을에 濕에 傷하면 肺臟에 病變이 생긴다는 것을, 喻昌은 가을에 燥에 傷하여야 肺臟에 病變이 發生된다고 認識하여 甘柔滋潤의 藥物로 淸燥救肺를 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여 淸燥救肺湯을 創劑하였다.

5. 喻昌이 말하는 “大氣”는 實際로 胸中陽氣를 가리키는 것으로 人體의 生成과 一切 生理活動이 “大氣”의 維持에 依存하고, 榮氣, 衛氣, 宗氣, 藏腑之氣, 經絡之氣를 統攝시킨다고 主張하였다.

6. 喻昌이 主張한 胃의 部分的인 機能과 特徵은 歷代醫家들이 “胃가 後天의 本이 된다.”는 理論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現代醫學과 臨床上에서 一致하는 面을 갖고 있다.

7. 喻昌은 用藥의 原則에 있어 “先議病後用藥”을 強調하였는데, 그의 “急流挽舟”法과 “單腹脹 治療의 三法” 등은 모두 “先議病後用藥”의 原則에 따른 創見인 것이다.

8. 喻昌의 實證的인 醫學思想은 張璐, 黃元御, 吳謙洛, 周揚俊 等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쳤으며, 「三綱鼎立」, 「溫疫의 三焦論治」, 「秋燥論」, 「大氣論」 등의 學說은 傷寒과 溫病 研究家들에게 重要한 研究 對象이 되었다.

9. 喻昌의 著書는 다른 醫家들의 著書보다 더욱 實證的인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傷寒과 溫病에 對한 思想은 後에 傷寒理論의 發展과 溫病學의 形成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 參 考 文 獻

1. 洪元植：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 洪元植：精校黃帝內經素問, 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5.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

- 部, 1985.
4. 裴浦然 外 5人: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5. 萬友生 外 9人: 喻嘉言醫學三書,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84.
6. 北京中醫學院: 中醫各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年1月.
7. 成都中醫學院: 傷寒論釋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8. 楊士孝注: 二十六史醫家傳記新注, 遼寧, 遼寧大學出版社, 1984年4月.
9. 王 琦 外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0. 陸九芝 外 4人: 世補齋醫書, 臺北, 五洲出版社, 1981.
11. 李潤海: 中國醫藥學家史話, 臺北, 明文書局, 1984.
12.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北京,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
13. 林輝鎮: 傷寒論新解, 臺北, 益群書店股份有限公司, 1986.
14.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臺北, 旋風出版社, 1978.
15. 程士德 外 2人: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6. 鍾新淵: 寓意草評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年6月.
17.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星港,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5年1月.
18. 陳道謹 外 1人: 江蘇歷代醫人志, 天長,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年1月.
19. 秦之濟: 清代名醫醫話精華, 旋風出版社, 1980.
20. 蔡陸仙編: 中國醫藥滙海, 臺北, 新文豐出版公社, 1981.
21. 萬友生 外 9人校注: 《喻嘉言醫學三書》的體會, 新中醫, 1984年第6期.
22. 徐景蕃: 喻嘉言論胃的學術思想概述, 中醫雜誌, 1987年11月 第28卷 第11期.
23. 孫志遠 外 2人: 王叔和編次《傷寒論》之功不沒, 中醫雜誌, 1986年10月.
24. 余國俊: 張錫純對大氣下陷證的鑑別診斷, 中醫雜誌, 1983年第8期.
25. 劉翔雲: 喻嘉言論治伏氣春溫的探討, 浙江中醫雜誌, 1983年第18卷 第6期.
26. 張再良: 侯氏黑散與喻昌的填汙說,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86年第1期.
27. 陳瑞春: 喻嘉言論秋燥, 雲南中醫雜誌, 1984年第5期.

## 註

- 1) 洪元植, 中國醫學史, p. 41.
- 2) 成都中醫學院, 傷寒論釋義, p. 1.
- 3) 洪元植, 中國醫學史, p. 293.
- 4) 上揭書, p. 293.
- 5) 上揭書, p. 298.
- 6) 上揭書, p. 311.
- 7) 上揭書, p. 299.
- 8)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p. 214.
- 9) 洪元植, 中國醫學史, p. 298.
- 10)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p. 125.
- 11) 洪元植, 中國醫學史, p. 316.
- 12) 上揭書, p. 316.
- 1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p. 218.
- 14) 上揭書, pp. 192-193.

- 15) 林輝鎮, 傷寒論新解, pp. 80-81.
- 16)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p. 394.
- 17) 上揭書, p. 394.
- 18) 上揭書, p. 395.
- 19) 上揭書, p. 395.
- 20) 上揭書, p. 395.
- 21) 上揭書, pp. 395-396.
- 22) 林輝鎮, 傷寒論新解, pp. 93-94.
- 23)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p. 396.
- 24) 上揭書, pp. 396-397.
- 25) 林輝鎮, 傷寒論新解, pp. 97-98.
- 26)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pp. 397-398.
- 27) 上揭書, p. 398.
- 28) 林輝鎮, 傷寒論新解, pp. 100-101.
- 29)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p. 398.
- 30)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6.
- 31) 上揭書, p. 7.
- 32) 上揭書, p. 4.
- 33) 上揭書, p. 8.
- 34) 上揭書, p. 3.
- 35) 上揭書, p. 5.
- 36) 陳大舜, 中醫各家學說, p. 25.
- 37)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5.
- 38) 上揭書, p. 5.
- 39) 上揭書, p. 175.
- 40) 上揭書, p. 176.
- 41) 上揭書, p. 175.
- 42) 上揭書, p. 26.
- 43) 上揭書, p. 25.
- 44) 上揭書, p. 25.
- 45) 上揭書, p. 25.
- 46) 上揭書, p. 26.
- 47) 上揭書, p. 26.
- 48) 程士德 外 2 人, 素問注釋滙粹, p. 47.
- 49) 程士德 外 2 人, 素問注釋滙粹, p. 75.
- 50)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518.
- 51) 上揭書, p. 518.
- 52) 上揭書, p. 518.
- 53) 上揭書, p. 518.
- 54) 黃帝內經素問今釋, p. 314.
- 55)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p. 519-520.
- 56) 黃帝內經素問今釋, p. 439.
- 57)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520.
- 58) 上揭書, p. 548.
- 59) 黃帝內經素問今釋, p. 314.
- 60)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322.
- 61) 上揭書, p. 322.
- 62) 上揭書, p. 322.
- 63) 上揭書, p. 329.
- 64) 醫學衷中參西錄 六期 第一卷 大氣下陷, p. 25.
- 65)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736.
- 66) 上揭書, p. 754.
- 67) 上揭書, p. 767.
- 68) 鍾新淵, 寓意草評注, p. 1.
- 69) 上揭書, p. 1.
- 70) 萬友生 外 9 人, 喻嘉言醫學三書, p. 670.
- 71) 上揭書, p. 742.
- 72) 上揭書, p. 742.
- 73) 上揭書, p. 743.
- 74)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p. 113.
- 75) 任應秋, 任應秋論醫集, p. 394.
- 76) 上揭書, p. 394.
- 77) 上揭書, p. 394.
- 78) 上揭書, p. 394.